

弘報室 : (02)
6050-3603~6

* 이 자료는 7/11(月)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7/11(月) 06:00부터

※ 문의 : 경제정책팀 이종명 팀장(6050-3442, 010-4611-7375), 이동찬 연구원(6050-3446, 010-3024-4208)

‘무역풍 다시 불까?’ ... “한국 산업기상도는 흐림”

<Trade Winds>

- 대한상의 산업기상도 ... EU 정세불안, 中 보호주의, 글로벌 분업 약화 등 무역리스크 커져
-  저금리·공공건설 수주 기대 ‘건설’, 아시아 수출 상승탄력 ‘정유유화’
-  EU 정세불안 ‘IT·가전’, 미·중 통상전쟁 여파 ‘철강’, 中 둔화 ‘기계·섬유’
-  글로벌 분업고리 약화로 “조선 호황 다시 올까?”

‘글로벌 무역풍(교역량 확대추세)이 다시한번 불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한국 산업기상도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브렉시트·EU 정세불안, 중국·미국을 중심으로 新 보호주의 색채 강화, 글로벌 분업(한 제품을 세계가 쪼개서 생산) 약화 등이 이유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둔화 원인으로 ‘불지 않는 무역풍(trade winds)’을 꼽은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1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공동으로 ‘하반기 산업기상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 정유유화는 하반기를 좋게 보는 ‘구름조금’으로 집계됐고, IT·가전,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의류는 ‘흐림’으로 하반기를 어렵게 봤다. 국지적으로 조선업종에는 ‘비’도 예보됐다.

건설	정유유화	IT·가전	철강	기계	섬유의류	자동차	조선
							
 맑음  구름조금  흐림  비							

실제로 건설은 저금리 및 공공건설 수주효과 등을 기대하고, 정유유화는 아시아 수출의 상승탄력을 기대하고 있어 ‘구름조금’으로 예보됐다. 다만 이들 업종도

대외불확실성을 염려하고 있었다.

IT·가전은 EU의 정세불안, 철강은 미국-중국간 통상전쟁 여파, 기계와 섬유는 중국의 수요둔화, 자동차는 중남미와 중동 수요부진 등으로 흐름을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분업고리의 약화로 조선은 ‘국지성 호우’를 예상했다.



중심제저금리 효과 ‘건설’, 최대 60% 수출상승탄력 ‘정유·유화’

글로벌 리스크에도 가장 맑은 지역은 ‘건설’로 조사됐다. ‘중심제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 이상 공공건설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으로 올해 본격화됐지만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상반기 7조9천억원의 공사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었다. 저금리로 인한 신규분양, 수익형 부동산 수요증가도 햇살을 들게하는 주요 원인이다. 다만, 구조조정 여파로 지방내수 위축과 함께 브렉시트發 해외수주불안은 하반기 부정적 요인이다.

정유유화업종도 ‘구름조금’으로 예보됐다. 저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전체 수출의 상당부분(80%)을 차지하는 아시아지역 석유제품 수요가 꾸준하다는 이유다. 실제 2분기도 아시아지역 휘발유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59%, 항공유는 15.4% 증가하기도 했다. 유화업계의 전통 수출품목 ‘에틸렌’도 해외경쟁사의 신규투자 축소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정유유화업종 역시 중국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구름을 동반하고 있다.



영국발 정세불안 ‘IT’, 新보호주의 ‘철강’ ... 中리스크 취약한 ‘기계, 섬유’

IT·가전은 EU 정세불안으로 무역품이 불지 않을 것을 우려해 구름낀 하반기를 전망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성장률도 작년에 비해 절반(7%)으로 떨어지고, 특히 브렉시트의 진원지 유럽시장으로의 수출이 20%에 달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우리 스마트폰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도 작년에 비해 절반(7%)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수요감소에 ‘반도체 굴기’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만, 플렉서블(구부러지는) 대형 LCD의 꾸준한 수요증가로 디스플레이 매출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新보호주의 파고가 일고 있는 철강도 하반기는 ‘구름’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과세를 매기면서 우리나라에도 50%의 관세를 매기는 ‘통상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업계는 걱정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원자재 수입도 부담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중국내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이 다소 진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 등 글로벌 리스크에 취약한 기계업종도 ‘구름’이다.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저유가로 인한 중동수요도 부진한 상태다. 브렉시트로 5월의 對EU 수출증가율 13.7%를 크게 하회하리란 전망이다. 다만, 베트남 경기활성화정책, 이란 경제제재 해제라는 호재에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섬유의류 업종은 세계최대 섬유수입국 중국의 수요감소 우려로 ‘구름’을 전망했다. 중국의 섬유수요가 늘지 못하는데다 국내 섬유소비마저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하반기도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의류 역시 ‘아웃도어 붐’ 이후 시장을 이끌어 갈만한 새 트렌드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의류생산기지인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 것이란 예상이다.

중남미, 중동으로의 수출감소가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도 ‘구름’이다. 그동안 자동차 판매증가세를 유지해왔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남미, 중동 등 신흥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은 계속 마이너스(-)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가 희망을 두고 있는 부분은 ‘브렉시트로 인한 엔고현상’이다. 경합도 높은 일본 차에 대해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감 때문이다.



‘수주절벽’에 선 ‘조선’... 유럽發 불안요인까지

조선업종에는 국지성 호우도 예상된다. 글로벌 분업고리(한국, 일본, 대만 등이 제조한 부품을 중국, 베트남 등이 조립, 생산해 수출)가 약화돼 물동량이 줄어 선박수주도 같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올해 세계선박 발주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수요감소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반기 한국의 수주량은 88% 감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선박발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다. 글로벌 석유기업들

의 해양플랜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가치사슬로 물동량 증가 덕을 봤던 한국 조선업도 냉정한 점검이 필요한 때” 라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하반기는 브렉시트, 新중상주의 외에도 불확실성이 큰 기간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구조개혁, 규제개선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때” 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산업기상도’ 는 업종별 실적과 전망을 집계하고 국내외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이를 기상도로 표현한 것이다. 맑음은 매우 좋음, 구름조금은 좋음, 흐림은 어려움, 비는 매우 어려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조사개요 >

- ☐ 조사기간: '15.6.7 ~ '16.7.4
- ☐ 참여단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등